

이스라엘 자국민 대피령...가자지구 지상전 임박

고속도로 경계 탱크·헬기 집결
이, 예비역 병력 30만명 소집
양측 전쟁 사망자 3000명 육박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맞붙 공습으로 교전을 이어가는 와중에 가자지구 인근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상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전날 밤 이스라엘이 가자 인근 지역 자국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고 72시간 동안 필요한 음식과 물, 다른 물자를 충분히 마련하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가자지구로의 지상 작전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이미 수백 톤의 폭탄이 투하됐으면서 "정확성이 아니라 피해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의 지상 작전에 앞서 30만명의 예비역을 소집하고 있다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경계를 따라 뻗어있는 이스라엘의 232번 고속도로가 양측의 새로운 전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10일 오전 이 도로를 둘러싼 지역에서는 공습과 대포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탱크가 지나갔으며 군용 헬리콥터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도로 주변에는 하마스 전투원으로 보이는 이들의 시신과 포격에 타고 부서진 차들이 버려져 있는 등 격렬한 전투의 흔적을 드러냈다.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아슈켈론에서 방공망 '아이언돔'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을 격추하고 있다. 유대 안식일인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교전이 벌어져 양측에서 200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화하면서 가자지구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전했다.

과거 교전 때는 일부 안전지대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설명이다. 일부 주민은 지하에 몸을 피하기도 건물에 무너

지면서 안에 갇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번 아·팔 전쟁으로 양측의 사망자가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200명으로 늘어났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이스라엘 공영 방송 칸을

이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사망자는 양측에서 2000명 가량으로 늘었다. 앞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8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연합뉴스

아프간 북서부 또 6.3 강진 7일 지진 인근...추가 피해 우려

지난 7일 규모 6.3의 강진이 강타한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서 11일 같은 규모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독일 지구과학연구소(GFZ) 발표를 인용,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으로 이날 오전 0시 41분(현지시간 오전 5시 11분)께 북위 34.67도 동경 62.14도 지점인 아프간 북서부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진원 깊이는 10km라고 통신은 전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진원은 헤라트주의 주도 헤라트의 북북서쪽 31km 지점이다.

강진 후 두 차례 여진이 이어졌다.

오전 0시 52분(현지시간 오전 5시 22분)께 헤라트 북쪽 51km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고 이어 오전 1시 13분(현지시간 오전 5시 43분)께 헤라트에서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고 EMSC는 밝혔다.

이들 두 여진의 진원 깊이도 10km였다. 앞서 지난 7일 헤라트주에서는 규모 6.3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여진이 여러 차례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고 마을 등이 초토화됐다.

당시 진앙도 11일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까운 헤라트 북서쪽 36km 지점이었다.

이전에 따르면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현재까지 이 지진으로 450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7일 지진으로 최소 1만1585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태국 '14세 소년 총기난사'에 불법총기 단속·규제 강화 추진

태국 정부가 14세 소년의 소핑몰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불법 총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11일 현지 매체 카오솅과 외신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9일부터 전국 47개 주에서 불법 총기와 개조 총기 등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업자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중앙수사국(CIB)에 8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불법 총기류 밀매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3일 방콕 시내 고급 쇼핑몰인 시암파라곤에서는 한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중국인 1명과 미얀마인 1명이 숨졌고 5명이 크게 다쳤다.

현장에서 특공대에 체포된 소년은 온라인으로 총기와 실탄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개조된 권총과 실탄을 판매한 일당 3명도 체포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아누친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승인 받은 일부 개인 외에 일반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손녀 돈자랑에 中 퇴직간부 부정축재 들통

“재산 100억” SNS서 부 과시
비난 여론에 당국, 재산 몰수

100억대 재산이 있다는 손녀의 돈 자랑에 중국 퇴직 간부의 부정 축재가 뒤늦게 들통나 당국이 박탈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11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기술위원회·감찰위원회(기술감찰위)는 전날 선전시 교통국 화물운수관리분국의 전 부국장 쑹경츠의 당적을 박탈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 축재 등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처벌하기로 했다.

올해 75세로 2007년 11월 퇴직한 그가 은퇴 16년 만에 부정 축재로 처벌받게 된 것은 그의 손녀가 소셜미디어(SNS)에 자신 집안의 부를 과시하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면서다.

그녀는 지난 3월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북극 메기’라는 필명으로 그의 가족 7명이 호주에 이민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집의 막대한 재산은 많은 중국인이 제공한 것”이라며 “내가 어떻게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집 재산 규모가 아홉 자릿수(1억 위안·약 184억원)라는 것”이라며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자랑했다.

누리꾼들이 이를 비판하자 “살편 돼지는 개 숫물만 먹는다”고 맞받아친 뒤 “나를 욕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나는 하루 만에 다 써 버린다”며 “집안에 청장급 이상 간부가 없는 사람은 나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 사진을 올린 뒤 “황령한 것 같다”는 글도 썼다.

그의 글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누리꾼들은 그가 쑹경츠의 손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중국 IMF 의결권 확대 계획 물거품?

지분 조정없이 할당량 확대
IMF “미국 방안 상당한 지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계획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이날 연차 총회가 열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지분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출연금 할당량을 늘리는 미국의 방안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앞으로 있을 모로코 대규모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의 출연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출연금은 IMF 대출 여력 1조달러(약 1340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IMF 기금은 코로나 19 사태와 기후 변화에 쓰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과 집행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IMF 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지분을 확대를 노렸다. IMF에서는 한 국가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곧 의결권이다.

중국뿐 아니라 인도와 브라질 등 다른 거대 신흥 경제국들도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반면에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분율은 2010년 결정됐는데, 미국은 17.43%를 갖고 있어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IMF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일본(6.47%), 중국(6.40%), 독일(5.59%) 등 순으로 지분율이 크고 한국은 1.8%로 16번째다.

출연금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오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다만, 지분율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기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